**즉시 배포용:** 2016년 11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의 선거일 보안 준비상황 논의**

브루클린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오늘 일찍, Cuomo 주지사는 뉴욕주가 11월 8일 선거일을 준비함에 있어서 뉴욕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Cuomo 주지사가 기자들과 한 대화의 발언문 초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 주지사님,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소식통에 따르면 알카에다가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제 예측으로는, 그들이 선거 전 날 뉴욕, 텍사스 또는 버지니아 중 하나에서 테러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 조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쿠오모 주지사:** 예, 저는 FBI 보고를 확인하고 싶지는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연방 정부 당국과 완전히 협력 및 협의하고 있다는 점이며, 우리는 이미 선거일에 대비해서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주 경찰, 주 방위군 및 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NYPD (New York City Police Department)와 협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뉴욕이 종종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이고, 좋은 소식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상황에서 살아왔으며,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와 연습을 해왔다는 점이며, 우리는 모든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므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자:** 테러리스트들이 대통령 선거와 아울러 상하원 선거를 포함해서 미국의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쿠오모 주지사:** Marcia 기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 전과도 다르고, 30년 전과도 다르지만, 오늘날의 뉴욕에서 여러분은 국제적인 테러의 대상이며, 우리 곁에는 증오 집단에 해당되는 테러리스트 집단이 존재하며, 그들은 하루 24시간, 주 7일 내내 테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유형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선거일, 공휴일, 보스턴 마라톤 대회일 등이 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이 기간들은 특히 증오 집단의 구미를 자극하고 흥미를 끄는 대상이며, 우리는 이러한 점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대응합니다.

**기자:** 이번 선거에는 러시아인들이 다양한 컴퓨터들을 해킹해서, 민주당의 정보를 공개하려고 시도하고, 선거 흐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등의 {잘 들리지 않음} 공격이 시도되는 등 모든 유형의 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술적 {잘 들리지 않음}으로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쿠오모 주지사:** 저는 그것이 동일한 전략을 위한 서로 다른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광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며, 그들을 정말로 저지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을 때마다,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날이고, 이러한 민주주의에서 최고의 공휴일인 선거일은 당연히 그들의 테러 대상이 될 것이며, 당연히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는 선거일까지 뉴욕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조치를 취했습니다.*

- *뉴욕주 방위군이 뉴욕시 메트로 지역에 700명 이상을 배치하고 있으며, 첼시 폭발사건 이래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뉴욕주 경찰이 주 전역에 걸쳐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5개의 지역별 특수작전대응팀과 아울러 폭발물 해체팀 및 90개의 경찰견 대응팀을 대비시켜두었습니다. 지능팀을 포함해서 모든 경찰들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으며, 방심을 늦추지 말고 유지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 *뉴욕주 지능 센터의 사이버 분석팀이 11월 9일까지 테러 위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주 선거관리위원회, 연방 국토안보부 및 FBI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서 지능 센터의 핫라인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와 주 7일 하루 24시간 내내 연결되어 있습니다.*

- *뉴욕주 정보기술서비스 팀은 선거일과 관련되는 모든 잠재적 사이버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응팀을 소집했으며, 핵심적인 정부 기관 담당자들 사이의 중단 없는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루 종일 협의체의 가교 역할을 조율할 것입니다.*

- *뉴욕주 비상운영센터는 11월 7일 월요일부터 11월 9일 수요일까지 강화된 모니터링 모드를 유지할 것입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면, 알려주세요" ("If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뉴욕 주민들은 주변 지역을 잘 살피고, 의심스런 행동은 신고해주시기를 재차 상기시켜 드립니다. 신고는 뉴욕주 지능 센터의 테러대응센터로 할 수 있으며, 테러 신고 전화번호*

*1-866-SAFENYS (1-866-723-3697)로 전화하거나, ctcenter@nysic.ny.gov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신고는 "See Something, Send Something" 앱을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